

“선문은 간데없고 대나무만 무성”

구산선문 참선기행

10월 - 봉림산문



○ 봉림사를 창건한 진경스님부도(보물 362호) 봉림사지에 있던 것을 1919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겼다.



○ 징유사 장유화상사리탑(경남도 유형문화재 31호).

신라 말~고려 초 경남지역에 선종을 전파시켰던 봉림산문의 근본도량이었던 봉림사지. 경남 창원시 봉림동 봉림산. 마을에서 산길로 접어들어 7백m 정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산 중턱에 2천여 평의 눈이 펼쳐진다. 북서쪽 중턱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동근 터에 석축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는 돌들이 흩어져 있다.

새월의 무거운 지우며 지금은 기록으로만 당시 드높았던 선종의 자취를 더듬을 수밖에 없다. <동국여지승람>에 '봉림사재봉림산유신라집사시랑최안공찬승진경탑비'(鳳林寺在鳳林山有新羅執事師崔仁演僧眞鏡塔碑)라는 기록이 있다.

비문에 따르면, 진경대사는 854년(신라 문성왕 16년)에 출생하여 923년(경명왕 7년)에 70세로 입적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출가 후 명산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로 부터 공경을 받고 국왕들을 불교에 귀의케 한 행적이 적혀 있다. 탑비는 그의 문도들에 의해 이듬 해 건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봉림사는 원감 현묵(眞鏡 玄默)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역사상 밝히기가



○ 봉림사지 석축으로 추정되는 돌무더기(기 보인다).



○ 징유사 대웅전에서 '한마음'을 화두로 좌선심법에 들어간 기행단.

석축 추정 돌무더기 밖에 없지만 '일심이 근본' 선사설법 들리는듯

어려우며 진경 심회(眞鏡 審會) 스님이 효공왕 때 창건하여 그의 스승인 현묵 스님을 개산조로 추앙한 것으로 보인다. 봉림사지 인근의 불국사도 진경스님 창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당시 경남지역에 미친 진경스님의 영향은 매우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진경스님과 그의 제자인 찬유스님의 문하에 각각 5백명의 수행자가 있었다. 그러나 봉림사의 폐사된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행단의 첫 번째 순례지는 길해 장유사. 봉림산문의 근본도량인 봉림사가 폐사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폐사지로 남아있지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가르침의 현면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진성(眞性)이 일심이며, 일심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봉림산문 개창조 진경스님의 뒤를 이어 선맥을 이은 찬유스님은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한마음'을 강조했다. 한마음은 무엇이고, 왜 한마음인가. 낮게 내려앉았던 구름이 곁하고, 새벽 햇살을 받아 대웅전 연화문 창살이 붉게 물들었다.

이러 장유사에서 버스로 3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봉림사지를 찾았다. 이곳이 사지였다는 표지판 하나 없다. 진경스님 부도(보물 362호)와 탑비(보물 363

호)는 1919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로 옮겨져 그나마 있었던 봉림사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대웅전 뒷편에 대나무를 배치하는 경남지역 사찰의 특징에 따라 주위 산등성이 서너군데에 아생 대밭이 있는 곳을 대웅전으로 짐작해 당시의 기암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선문의 모습이 없다고 어찌 선문이 아니겠는가. 옛 사람들은 '행주와 외에 눈으로 보고 인연을 만나는 것이 모두 부처의 묘용이라, 즐겁고 상쾌하여 걱정이 없으니, 그래서 부처라 이름하는 것이다'고 했다. 옛질은 지금 눈이 되어 중생의 육신을 지탱케 하나 봉림산문은 중생의 피와 살로 화해 중생 속으로 들어와 수백년을 이어오고 있다.

폐사된 이유와 관련,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시대 전기의 유명한 성리학자인 이언직 선생의 후손이 이곳이 명당임을 알고 묘를 썼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묘를 쓴 이후 봉림사는 기울기 시작했고, 이제 가문 역시 망했다고 한다. 단지 묘를 썼기 때문에 폐사가 됐다고 이해되기보다는 당시 왕실의 승유역불경배와 유림의 세가 유난히 강했던 경상도 지방의 지역적 특성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개산조 진경 심회스님

제자 5백여명 배출

9세에 현묵선사의 제자로 출가하였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심동(心燈)을 이으라는 스승의 당부를 받들어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며 수행했다. 수행 중 도를 구하고자 하는 학인이 모여들자 경남 창원시 봉림사를 창건하고 선종을 크게 신앙했다. 한때 경명왕의 청을 받아들여 궁궐에 들어가 설법을 했으며, 이때 왕은 심회스님에게 법응대사(法應大師)라는 존호를 내렸다.

그 뒤 스님은 봉림사로 돌아와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923년에 입적하였다. 제자로는 찬유, 경정, 용재를 비롯해 5백여명에 이르렀다.

성주사

창원지역 최대사찰

경남 창원 지역의 최대 사찰로 불모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835년(신라 효덕왕 10년) 무열국사 창건으로 전해진다. 곱이 폭재를 옮겨와 절을 지었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져 응신사(應神寺) 또는 '공절'로 불리기도 한다. 대웅전 우측 벽면에 창건설화를 그린 벽화가 눈길을 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다보계 맞배 지붕이 일품인 대웅전(경남도 유형문화재 134호)과 전형적인 고려 때의 석탑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삼층석탑(경남도 유형문화재 25호)이 천년고찰의 향훈을 전해준다.

장유사

불교 남래설 본산지

김수로왕의 처남인 장유화상이 누이를 따라 수로국에 와서 재일 먼저 이곳에 토굴을 짓고 수로국에 불법을 전했다는 유서깊은 사찰이다. 불교의 남방전래설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대웅전 뒷편에 장유화상 사리탑(경남도 유형문화재 31호)과 장유화상 사적비가 있다. 주지 법성스님이 주석하면서 대웅전과 삼성각 요사채 등을 지어 사찰의 면모를 갖췄다.

남북통일기원 및 제11대 혜정 총무원장 취임법회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아 본 중에서는 남북통일기원법회와 함께 혜정 대종사의 제11대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원로대덕 큰스님들이 참석하게 될 뜻있는 이번 법회에 전 종도들이 제2창종의 일념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43년 10월 29일 금요일 (음력 9월 21일) 오전 11:00
 ■ 장 소 : 대한불교 일승종 총본산 삼봉사 대웅전 문 의 : 0346-562-2751

- | | | |
|---|---|--|
| <p>중 명 : 법호 개원 대종사
 중 사 : 혜정, 묘종, 원하, 일운, 혜지
 자문위원 : 무강, 배덕, 대한, 배인, 법운, 배봉, 남강, 영운, 윤고, 정도, 범창, 원진, 대상, 법조, 배동, 고원, 범창, 인찬, 대식, 지장, 배공, 일소, 도우, 배승, 자인, 교정, 원성, 정호, 효원, 언덕, 관봉, 정수, 덕명, 연봉, 동명, 수덕, 성철, 우남, 보철, 지운, 경재, 봉해, 석진, 원심, 호정, 수연, 배광, 배동, 경보, 보현, 범공, 도양, 도우, 삼보, 범성, 범신, 성덕, 법운, 백운, 대우, 달마, 수경, 박달, 성봉, 정배, 일배, 영달, 배근, 배봉, 왕십, 산공, 원산, 성라, 지달, 반하, 동호, 배춘, 화정, 화공, 도관, 배유, 원일, 범공, 운호, 석초, 정동, 정국, 원포, 윤공, 덕은, 한우, 지암, 율화, 상운, 동현, 동공, 원암, 범선, 묘유, 천봉, 배목, 능진, 구암, 선연, 대일, 대하, 배유, 명철, 대각, 금연, 지철, 범상, 원성, 용우, 상오, 무진, 지남, 용수, 선학 (무순)</p> <p>봉행위원장 : 배덕
 봉행부위원장 : 법조, 산중
 봉행위원 : 홍상, 덕호, 학문, 원식, 문실, 신각, 명식, 지성, 달마, 성지, 법도, 일운, 무각, 문수, 송암, 범진, 배성, 범선, 호, 정하, 원도, 삼보, 대명, 인창, 범신, 도봉, 동화, 배일, 서계, 위승, 원남, 덕철, 정배, 도암, 범찬, 은과, 원성, 화공, 화공, 장호, 미배, 영암, 일성, 백성, 배연, 배철, 송과, 우담, 원과, 묘명, 묘수, 배석, 상운, 법은, 일배, 묘명, 덕은, 묘진, 성암, 묘인, 석암, 청산, 용성, 상하, 보현, 작성, 정각, 원담, 묘진, 도광, 민봉, 청공, 묘유, 범법, 범일, 선배, 원산, 도은, 배봉, 대진, 성진, 배수, 정실, 인종, 인철, 철화, 무공, 서배, 배운, 목강, 지우, 용암, 도연, 원손, 천호, 묘덕, 배각, 도승, 영한, 배원, 대배, 회조, 장배, 배성, 배봉, 죽산, 봉송, 배원, 미연, 소설, 일강, 할하, 묘광 (무순)</p> <p>집행위원장 : 배덕
 집행부위원장 : 남강
 집행위원 : 봉상, 법운, 묘광, 선재, 곡우, 배광, 배동, 범성, 배암, 혜정, 월봉, 법승,</p> | <p>경진, 외봉, 상백, 인담, 광운, 경호, 계관, 부공 (무순)
 기획위원장 : 배봉
 기획부위원장 : 배신
 기획위원 : 경보, 대공, 진각, 삼보, 도명, 덕화, 호관, 상공, 배문, 대운, 대성, 동국, 태도, 삼배, 춘담, 미연, 원만, 성실, 범영, 범광, 용진, 배승, 용산, 승도 (무순)
 홍보위원장 : 배인
 홍보부위원장 : 정
 홍보위원 : 은과, 배산, 배선, 태도, 상각, 범공, 상오, 범기, 범인, 효광, 치산, 정타, 범광, 석근, 강산, 최정, 장산, 삼봉, 지상, 무경 (무순)
 총무분과위원장 : 일상
 총무분과부위원장 : 동화
 총무분과위원 : 범상, 지공, 대봉, 범봉, 도성, 자광, 일경, 배철, 보현, 보연, 안배, 독만, 경공, 신화, 상화, 철원, 도명, 진성, 경덕 (무순)
 포교분과위원장 : 동인
 포교분과부위원장 : 정수
 포교분과위원 : 석연, 성배, 대명, 대공, 유진, 배철, 배철, 광화, 범운, 성도, 일과, 현도, 현신, 배원, 명봉, 현인, 윤과, 도일 (무순)
 사회분과위원장 : 문공
 사회분과부위원장 : 정암
 사회분과위원 : 성오, 배진, 성덕, 보광, 범현, 무승, 지하, 일성, 배인, 도암, 인종, 도우, 상봉, 석단, 갈평, 백승, 경덕, 경문 (무순)
 규정분과위원장 : 배신
 규정분과부위원장 : 대성
 규정분과위원 : 상운, 덕암, 정승, 자연, 범성, 운성, 신우, 범교, 봉진, 성현, 종인, 재암, 서봉, 정일, 종주, 호산, 배담, 정인, 성암 (무순)</p> | <p>교육분과위원장 : 법조
 교육분과부위원장 : 지용
 교육분과위원 : 득진, 배진, 흥배, 노암, 인규, 철화, 배관, 일각, 현규, 성우, 도근, 묘성, 진덕, 계성, 도학, 정화, 일여, 은하 (무순)
 종책분과위원장 : 정대
 종책분과부위원장 : 상하
 종책분과위원 : 법도, 정람, 운봉, 성진, 철운, 수경, 덕조, 경식, 용법, 시운, 성배, 구오, 함여, 인배, 송일, 조항, 상진, 배문, 일승 (무순)
 재무분과위원장 : 범환
 재무분과부위원장 : 곡우
 재무분과위원 : 성배, 배성, 법은, 경보, 용호, 인덕, 정암, 자수, 배정, 배관, 백암, 배종, 장영, 수덕, 재원, 배수, 할자, 반야, 조운, 원황, 만일 (무순)
 진행분과위원장 : 정도
 진행분과부위원장 : 홍섭
 진행분과위원 : 경덕, 범공, 탄공, 운산, 범수, 범광, 남산, 배신, 성국, 배산, 석환, 정하, 배관, 정법, 건봉, 삼봉, 곡승, 우만, 윤학 (무순)
 비구니회장 : 성화
 비구니총무 : 지성
 비구니봉행위원 : 도성, 명화, 문정, 일조, 원정, 배철, 법운, 현경, 보연, 도암, 정명, 상우, 정산, 자운, 보철, 운화, 보현, 여래, 연화, 범연, 모한, 모경, 범항, 보신, 무배, 덕화, 정실, 정은, 지은, 지현, 권여성, 차연, 청심, 배연, 철화, 지성, 법연화, 정수, 덕명, 배성, 연봉, 성철, 지운, 배정, 도명, 대현화, 실상화, 원성, 호정, 대현실, 영지, 효광, 지현, 정실, 자아, 소현, 지은, 자광, 배원, 계봉, 석연, 대명, 유진, 보광화, 묘연, 덕행실, 백연일, 극락화, 범불심, 대자행, 원자실, 묘암 (무순)
 전국신도회장 : 하종우</p> |
|---|---|--|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